



봄 향기 가득한 한낮의 콘서트
4월 매주 수요일 시청서 야외공연 열려

C O N T E N T S

03 미래형 첨단도시

08-09 특집 _책과의 데이트

11 사람들

14 문화_레포트

16 성남의 향기

생동하는 봄기운이 완연한 4월, 봄 향기를 담은 야외공연이 매주 수요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봄 향기 가득한 한낮의 콘서트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과 인근 직장인, 주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문화공연도 즐기고 휴식도 취하도록 성남시민회관에서 마련한 것이다.

4월 4일 여성전자현악단 포엠의 활기찬 무대를 시작으로 시립예술단의 공연이 차례로 이어진다. 익숙한 레퍼토리로 한낮의 달콤한 휴식을 선사한다. 관람료는 무료.

한편 년별 퍼포먼스 '난타'가 4월 14일(토) 오후 3시·6시 성남시민회관 대극장에서 10주년 기념 특별공연을 펼친다.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난타'는 대사 대신 리듬과 비트 상황만으로 구성된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으로 지난 10년간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A석 2만원. 예매문의 티켓링크 1588-7890

- 일 시 4월 매주 수요일 12:30~13:00(30분간)
- 장 소 성남시청 광장
- 관람료 무료
- 콘서트 일정 4.4 전자현악단 F-em
4.11 성남시립합창단 팝코러스팀
4.18 성남시립국악단
4.25 성남시립교향악단 현악 8중주
- ※ 우천시에는 성남시민회관 대극장·소극장으로 옮겨 공연합니다.
- 문 의 성남시민회관 729-5400~1

우리 고장 들꽃2 노루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전국에 퍼져 서식하며 낙엽수 나무 밑 습기가 마르지 않는 곳을 좋아한다. 특히 울릉도에 서식하는 섬노루귀는 우리나라에 만 분포하는 고유종으로 소중한 자연자원이다.

겨울의 끝에 눈을 헤치고 나와 봄을 알린다 하여 파설초(破雪草) 또는 설할초(雪割草)라고 부르

도 한다. 한약명으로는 장이세신(樟耳細辛)이라고 하며, 민간에서는 식물 전체를 8~9월에 채취하여 두통과 장 질환, 큰 종기를 치료하는데 쓰며, 봄에 어린잎을 따서 나물로 먹기도 한다.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독성이 있으므로 나물로 먹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

4월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며, 추운 아침에는 다소곳이 오므리고 있다가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 서서히 펴지고 잎이 활짝 피면 꽃잎은 3개로 갈라지는데, 실은

언뜻 보아 꽃잎처럼 보이는 것이 꽃받침이다.

분홍색, 남자주색, 붉은색, 흰색 등 색 변종이 다양하고 또 가장자리에 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3갈래로 나누어진 잎은 토끼풀의 잎과 비슷한 타원형이며 꽃이 진 다음에 뿌리에서 나온다. 잎에 털이 돌아 나오는 모습이 노루귀 같다고 해서 식물이름을 노루귀라고 부른다.

작고 앙증맞은 꽃 모양새는 화단 앞쪽에 모아 심으면 이른 봄에 먼저 피므로 아름답다. 화분에 심어

인테리어용으로도 좋으나 영양이 적거나 화분이 작으면 꽃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여름 장마철에는 습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관리에 주의하고 한 여름에는 반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퇴비가 충분한 토양이 좋고, 토양의 수분 유지를 위해 양겨 등을 뿌려주면 생육에 좋다. 특히 추운 겨울 휴면기를 거쳐야 색도 아름답고 튼튼하다.

꽃말은 '인내'로 알려져 있다.

자료제공: 들꽃사랑
이미숙 기자 kuk-whoa@hanmail.net

저상버스 10대 조기 추가 도입, 총 7개 노선 34대 운행 장애인·노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성남시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 저상버스 차량 10대를 조기 도입하고 3월 말경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새로 추가되는 버스는 442번(성남시내버스(주)) 10대로 상대원을 기점으로 삼성역까지 운행한다. 기점 및 경로가 야탑테크노파크-서현역-장안타운-돌마로-상대원-성남세무서-산성역으로 변경(기타 운행지역 동일)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 57번(테크노파크~세곡동사거리), 3-1번(상대원~광주(송정동)), 2-1번(산성동~오리역), 50번(남서울공원~행정학교), 51번 버스(상대원~서울대병원), 60번(남서울공원~신구대) 등 7개 노



선에 총 34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된다. 시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차량을 도입,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교통행정과 버스운영팀 729-5041

시/정/알/림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 열람·의견제출: 2007. 3. 14 ~ 4. 3
- 장 소: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 열람내용: 2007.1.1 현재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세정과 시세운영팀 729-3522

공동주택 공동시설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신청

- 지원대상: 단지내 주도로 유지보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어린이 놀이터 및 공동화장실, 비영리목적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공부방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준설, 가로등·보안등·지상 주차장 유지보수
- 신청기간: 2007. 3. 30(금)
- 신청장소: 시청 주택과

주택과 주택시설팀 729-4630

4월 5일부터 새주소 사용

- 새주소란?: 선진국처럼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 찾기쉽게 만든 주소체계
- 사용시기: 2007. 4. 5 (목)부터(단 2011년까지는 지금의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
- 새주소 표기법: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9(현재)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새주소)
- 우리집 학교 새주소로 알아보기: 새주소 정보 통합센터(www.새주소.kr 또는 www.juso.go.kr) 검색해 새주소·지번주소 확인, 건축물 상호, 생활정보, 응급의료시설, 최단거리 확인 등

도시계획과 지적팀 729-4441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 전세자금 저리대출 지원

성남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기 위해 연중 저리(2%)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단, 만 3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세대주로 등록된 단독세대주 가능)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3자녀 이상 다가구 가정은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세입자이다.

세대당 대출 가능액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이고 금리는 연리 2%, 상환조건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우리은행, 국민

은행, 농협 등을 방문해 대출 사전상담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각 구청에 비치돼 있는 대출신청서와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출추천신청을 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총 5천580세대에 총 662억8천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해왔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팀 729-2113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수정구 737-2323
중원구 750-2325 분당구 710-2326

※ 경기지방공사가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전세금 지원한도액 호별 5천만원 이내)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동사무소 복지담당

성남시 산하기관 행정전화번호 국번(729-xxxx) 통합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One-Call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성남시 산하 3개 구청 및 45개 동사무소 행정전화번호 국번을 729-xxxx으로 통합 운영한다.

기관명	현재	변경후
성남시청	729-2000~5999 (대표전화 729-2114)	729-2000~4999 (대표전화 729-2114)
수정구청	737-2000~2999 (대표전화 737-2114)	729-5000~5999 (대표전화 729-5114)
중원구청	750-2000~2999 (대표전화 750-2114)	729-6000~6999 (대표전화 729-6114)
분당구청	710-2000~2999 (대표전화 710-2114)	729-7000~7999 (대표전화 729-7114)

판교택지개발 지구 내 임시 우회도로 개설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 판교신도시사업단(단장 민병헌)은 판교택지개발 계획에 따라 현재의 서현로 및 분당~내곡간 도로를 일부 변경, 각각 3월 17일(토)과 24일(토)부터 우회도로를 임시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우회도로는 기존 서현로 및 분당~내곡간 도로가 통과하는 아파트부지의 건설공사 착공과 매송사거리 및 수내사거리와 연결되는 각 신설 도로 시점부의 지하구조물 연결공사를 위해 임시로 개설하는 것으로 내년 5월까지 이용하게 된다.

지역주민의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속도를 50km/h로 제한했으며, CCTV·차량과속경보시스템·교통안내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

을 설치했다.

▲ 서현로 우회도로: 매송사거리(이매고)~분당~내곡간 도로 교량하부(구 차량등록소 앞)

▲ 분당~내곡간 우회도로: 수내사거리(LG주요소)~판교택지조성부지~현재 분당~내곡간 도로



택지개발과 택지시설팀 737-2171
대한주택공사(판교신도시사업단) 778-0153

'성남 시민의 날' 변경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시는 1992년부터 매년 7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4년마다 민선시장 취임일과 중복되고, 이 시기가 여름 우기철로 시민의 날에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와 문화·예술행사 개최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남발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대다수 시민이 '시민의 날'을 10월로 변경하는 데 동의(83.2%)했으나,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설문조사에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기 간: 2007.3.12~3.31(20일간)
- 문 의: 성남시 자치행정과 729-3311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결과보기(클릭)

성남 기업지원 허브 '성남비즈니스라운지' 오픈 비즈니스와 네트워킹을 위한 열린 공간



수도권 최고의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킨스타워에 시민과 기업인을 위한 열린 공간, 성남비즈니스라운지(Seongnam Business Lounge) 가 문을 열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7층에 설치한 성남비즈니스라운지는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상품 홍보의 장(場)은 물론, 국내외 바이어와의 상시 수출·구매상담 장소 및 기업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 종합지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성남시 우수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 성남시의 산업발전 방향과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시책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자녀들의 경제·교육적 측면에서도 유익한 장소로 설계되었다.

특히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기업종합상담실, 재단의 다양한 기업지원 정보 제공, 기업간 교류회·연구회 등이 상시 열리는 네트워킹 기능이 함께 있어 기업관계자뿐 아니라 지역 내 대학교·연구소·창업투자회사 등의 유관 기관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성남의 기업지원 허브'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하노버 국제정보통신 박람회서 수출계약 달성

한편 재단은 독일 하노버에서 지난 3월 15일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 '2007 하노버 국제정보통신박람회(CeBIT)'에 성남 기업 10개사를 파견, 7일 동안 5천여 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바이어들을 상대로 높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2005년에 이어 세번째로 성남 공동관을 구성했는데 펜마우스를 출품한 와우테크(주)에는 참가 기간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GPS 데이터 송수신기, 하드디스크 타입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첨단 기술제품으로 관람객과 바이어의 눈길을 끌었다.

재단은 이번 CeBIT 2007 참가에 이어 오는 4월 춘계홍콩전자박람회 등 총 8회 해외전시회를 통해 성남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마케팅지원팀 782-3017

2009년 상반기 완공 판교에 파스퇴르연구소 들어선다

세계적인 생명공학 연구기관인 프랑스 파스퇴르의 한국연구소가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로 이전한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소장 울프 네바스)는 지난 3월 16일(금) 오전 11시 판교테크노밸리 건설현장에서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0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4,321평 부지에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된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KIST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2004년 4월 프랑스의 파스퇴르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협력해 설립한 생명과학 연구기관으로, 지난 2005년 경기도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판교 이전을 결정했다.

연구소가 본격 가동되면 우수 연구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국내 신약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판교테크노밸리는 판교신도시 내 20만평에 정보통신, 생명과학, 나노기술, 문화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기능이 집적된 국제적 연구개발단지로서 2010년 준공된다.

성남시 · 성남중앙병원 협약... 24시간 전문의 응급의료 실시

그동안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시설·장비 등이 낙후돼 있던 성남중앙병원이 응급실 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을 통해 응급실 병상 수를 11병상에서 20병상으로 증설했다. 또한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의료장비 보강으로 CT 등 14종의 응급 의료센터 수준의 장비를 갖추었다.

이는 수정·중원구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와 성남의료원 건립지연에 따른 시민의 효율적인 응급의료 편의 제공을 위해 성남시와 협약을 체결한 데 따

른 것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3명 고정 배치하는 한편 24시간 응급실 전



담 전문의 체제로 응급실 기능을 지역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보강, 응급의료 처리능력이 높아졌으며, 응급의료 기능은 센터 수준이지만 수가는 응급의료기관 수가를 적용해 저렴하다.

특히 성남시 거주 의료급여수급자(1·2종)가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이용시는 응급의료 관리료 및 응급의료급여(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7995-599
기타 문의: 수정보건소 약무관리팀
729-5471

남한산성 환경기행 등 환경체험 시작

‘성남 습지 생태지도’ 제작해 눈길

성남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가족단위 2,50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과 격주 토요일 남한산성 환경기행 주말탐사반을 운영한다.

가족끼리 지역환경교육과 역사교육을 함께하는 주말탐사반은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안내, 숲속 체험과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를 접목시킨 숲 관찰 등을 내용으로 계절에 맞게 매월 주제를 달리해 진행한다.

또한 초등학생의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기 위해 구별 체험환경 학교를 지정,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4월부터 11월까지 숲체험, 하천체험, 조류탐사, 환경놀이 학습, 재활용 학습, 시설견학, 생물도감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학교별 5회 정도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체험학습장소로는 황송공원, 남한산성 유원지, 성남자연생태원, 들꽃농원, 쓰레기소각장 등이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방치된 관내 습지 100여 곳을 찾아 ‘성남 습지 생태지도’로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도는 ‘우리고장의 습지 생태환경과 소중함’과 ‘범시민 습지 찾기 운동’을 알리는데 활용된다.

시는 이들 습지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토지매입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실제로 서현저수지는 시범적으로 토지매입 및 생태공



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웅달샘·저수지·논·웅덩이 등의 습지는 새·어류·곤충·양서류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며, 오염물질 정화·홍수조절 기능과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환경보전과 환경보호팀 729-2421~2

향토음식 닭죽과 갈매기살, 지역대표 브랜드로 육성

성남시는 3월 15일 대표적 향토음식인 닭죽과 갈매기살을 시 대표 브랜드 음식으로 육성키 위한 간담회를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토음식 연구개발의 취지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시 관계자의 설명에 이어 전문연구기관 한국식품연구원의 향토식품 개발연

구사례와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추후 향토음식 발전을 위한 자문을 통해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그간 새로운 음식 개발 의사는 있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관계 영업자들은 시의 적극적인 브랜드 음식 개발의지에 활력을 되찾고 있다.

또한 시는 브랜드음식의 상표제작 및 이번 연구개발과 병행, 올해 8월에 있을 ‘성남향토음식축제’에 연구개발 상품을 전시해, 시의 대표적 향토음식으로 손색이 없도록 닭죽과 갈매기살을 지역특화 브랜드 음식으로 육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건위생과 보건위생팀 729-2312

『성남금석문대관』속편 · 『고려명신전』하권 출간

성남지역 향토사의 문헌상 출처로 활용

성남문화원은 성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금석문을 총괄 기록한 『성남금석문대관』속편과 고려의 명신(名臣)·도학자(道學者)·충신·효자·열녀·일민(逸民) 등 282인의 행적을 수록한 『고려명신전(高麗名臣傳) 하(下)』권 등 전통문화 대사업을 총정리한 역저를 최근 출간했다.

『성남금석문대관』속편은 2003년 12월 1차 발간 때 수록하지 못한 주요 금석문, 즉 성남금

석문 분포지도, 경기도기념물 제54호인 이수 선생 묘역과 묘갈 등 6기의 비석 컬러화보와 신도비 8기, 묘갈 11기, 묘표 35기, 사적비 6기 등을 타블로이드판 규격 총 555쪽에 수록하고 있다.

또한 『고려명신전(高麗名臣傳)』은 2004년 상(上)권에 이어 이번에 하(下)권까지 완결 편찬했다.

두 발간물은 신도시 성남지역의 향토사 전거(文獻上 출처)로서



성남시민은 물론 관련 학자들에게 가치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문화원 756-1082

여/성/정/책/개/시/판

제20회 성남시여성상 대상자 추천

- 부문: 5개 부문(훌륭한어머니, 봉사, 예능, 평등, 신지식인) 각 1명
- 선발기준
 - 훌륭한어머니 부문: 아름다운 심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고 사랑과 자애로 자녀를 훌륭히 성장시켜 가정화목에 모범이 되는 여성
 - 봉사 부문: 개인 또는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해 불우이웃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성
 - 예능 부문: 각고의 노력으로 예술, 기능 등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이를 발표함으로써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한 여성
 - 평등 부문: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남녀평등에 노력하여 여성의 인권보호, 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 등에 공헌한 여성
 - 신지식인 부문: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최대한 개발하고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여성
- 자격: 2007. 3. 31 현재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여성
- 추천권자: 각 구청장, 사회단체장
- 추천기한: 2007. 5. 4(목)까지

여성정책과 여성생활팀 729-4121

성남 여성 기예경진대회 참가 신청 안내

- 대회일시: 2007. 4. 21(토) 10:00~16:00
- 참가대상: 20세 이상 성남시 거주 여성(2007.4.21현재)
- 경진부문: 8개 부문
 - (시, 수필, 사진, 회화, 꽃꽂이, 서예, 문인화, 컴퓨터)
- 시상내역: 최우수 우수 가작 각 8명, 장려 32명
- 신청기간: 2007. 4. 2~4. 20
- 참가신청: 시 여성정책과,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과 여성생활팀 729-4120~2

둘째·셋째자녀 보육료 신청하세요

경기도와 성남시는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정부지원 단가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되므로 관할 동사무소에 보육료를 신청하면 된다.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자로 둘째아 이상 아동(24개월미만)이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모 대상아동이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서 0~만5세까지 셋째이상 자녀가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여성정책과 보육정책팀 729-4134

알/아/두/면/편/해/요

정지역 킨스타워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운영시간: 08:00~21:00(공휴일 09:00~21:00)
- 발급종류: 주민등록등초본, 지적(토지, 임야, 집합건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자동차 등록원부, 국민기초수급자 증명, 의료급여 증명, 병적증명 등 12종
- 기타: 본인여부 확인 증명 발급시엔 주민등록증 없이 지문 인식으로 발급

분당구 시민과 민원팀 710-2040

정부 민원전화 110번으로 통일

국민고충위원회는 올 5월부터 정부 민원 통합안내 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전국 어디서나 110번을 누르면 정부와 관련한 모든 민원을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주요 공공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총 312곳이다.

법정단위 올바른 표기

- 평 → m² 부동산 거래시 “㎡” 단위 표기 사용
- 돈, 양 → g 금은 짝수단위 정수거래(2g, 4g...10g)
- 1인분 → g 부정확한 “○인분” 대신 “g”으로 표기 권장

수돗물, 알고 먹읍시다!

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 복정정수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수용가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힌 바 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다루는 복정정수장의 수돗물 생산과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현장에서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임을 확신시킨 바 있으며 그 체험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 시민이 그동안 몰랐던 수질 기준과 수돗물에 대한 상식을 좀더 알아보기로 했다. 과연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의 수질기준은 어떻게 정할까?

세계보건기구(WHO)의 내용에 따라 검출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해 항목별로 성인이 매일 2ℓ씩 70년간 수돗물을 음용하는 경우 100만 명당 1명이 인체에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수질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그 나라의 수자원상태·경제적 수준·정수처리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의 건강을 충분히 참고한 가장 안전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서 “물이 나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데 앞으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듯싶다.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건 물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증거이고 각종 수인성 질병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수돗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뿌연 게(열은 우윳빛) 보이는 현상은 약품이 아니라 수압과 기압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기포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이 세계 나온 후에 받은 물이 하얗게 보이는 것은 수압이 높을 때 물 속에 섞인 공기가 물의 흐름에서 소용돌이 현상을 일으켜 수도꼭지를 통과하면서 매우 작은 크기의 기포가 발생된 것으로 일명 백수현상이라 하며, 시간이 지나면 기포는 없어

지고 맑은 수돗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돗물이 마른 후에 생기는 물양금(잔류물)은 성분이 양이온·음이온의 물질로 통상적으로 미네랄이라고 부른다. 맛있고 건강한 물의 미네랄 적당량은 30~200ppm이며 성남시 수돗물에서는 60ppm정도 존재한다고 한다.

물을 섭취한 후 미네랄은 위장에서 흡수되어 몸 전체에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게 되며,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엔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며 물 속에 녹아있는 미네랄의 함량이 너무 많으면 쓴맛, 짠맛, 짠맛이 나타난다.

꽃샘추위가 아직은 두어 번 정도 남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완전한 봄이다. 물이 많이 사용되는 계절이 되면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물이다. 의심부터 하지 말고 정보와 상식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 또한 우리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복정정수장 견학문의: 729-2888
이길순 기자 eks323@hanmail.net

취업 News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참가자 및 참여기관 모집

노동부 성남지청에서는 청소년에게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연수지원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은 지난해와는 달리 공공연수기관의 매칭펀드 방식 도입 등 제도가 청소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중 심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시행하고 있다.

연수 지원대상자는 15~29세(1978. 1. 1 ~ 1992. 12. 31) 미취업 청소년(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으로, 연수기간은 주 20시간 6개월 범위 내이며,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을 지급한다. 동원대학, 한국관광대학 등 대학에 따라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연수 참여기업은 민간부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이며, 공공부문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보조기관 등이다.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739-3197~8

어르신 취업전 지원프로그램 “희망의 은빛행진”

시작이 반! 준고령자 및 고령자(50세 이상) 중 취업의사가 있는 자(선착순 6~15명)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7일 동안(총 42시간) 구직기술훈련, 집단프로그램, 취업유지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매월 1, 3주 상대원1동복지회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상대원1동복지회관 747-3035

소비자 News

서민 주거도우미 ‘전·월세지원센터’ 개소

봄 이사철, 전·월세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의 마음이 편지 않다. 이러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1월 15일 건설교통부가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 전월세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전월세물량정보 제공과 함께 임대차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전월세 자금대출 관련 금융상담 서비스 등 전월세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서민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각종 전월세 관련정보를 수요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www.bogeamjaril.com)을 통한 상담, 변호사, 파견 은행원 등을 통한 직접상담, 1577-3399를 통한 전화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다.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번호 정리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된 적이 있는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사이버 공간에 숨어 있는 내 주민번호 찾기 캠페인’을 벌여 웹에 떠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계정’을 찾아 삭제해주고 있다.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포털 사이트의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http://clean.mogaha.go.kr

소비자 Q&A

노인대상 전화권유 판매 시 대처방법



Q 이 모 씨는 어느 날 택배로 소포를 하나 받았다. 시어머니 앞으로 온 건강용품이었다. 며칠 전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와 당첨된 사람에게만 건강용품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여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노인들을 속여서 물건을 판매한 것 같으며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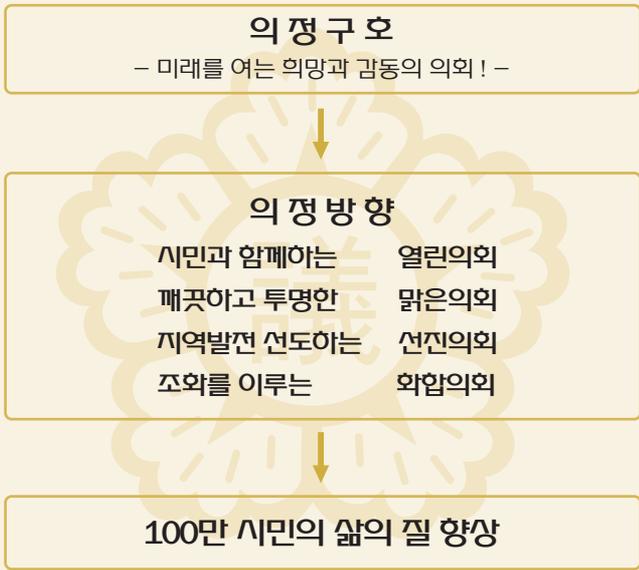
A 이와 같은 판매방법을 전화권유 판매라고 하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구매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네티티브 판매이기도 하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고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이 표적이 되기 쉽다.

이 경우 방문 판매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이내에는 계약해제 및 반품이 가능하다. 더구나 계약일은 물론 상품가격, 계약조건, 청약철회방법, 판매자 주소와 연락처 등이 상세히 기록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소비자의 경우 상품을 되돌려 보내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 회사에 반품요구서를 보내는 등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면 된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

제5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의정방향



2007년도 제142회 임시회 마무리

성남시의회(의장 이수영)는 2007년 2월 23일~3월 8일(14일간) 제142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심사 및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14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심사보류

자치행정위원회

-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경제환경위원회

-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성남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심사보류

사회복지위원회

-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성남시 서현문화의집 위탁 관리계획 동의안 - 원안가결
-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조례(안) - 수정가결
-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건립 촉구결의안 - 불채택

도시건설위원회

-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 채택
- 성남초등학교사거리 고가도로 설계변경요구 청원의 건 - 채택
- 양지동 선명연립주택 재건축공사 주변 피해 대책마련 청원의 건 - 채택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구성

-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가결
- 위원 선임 : 12명(위원장 최윤길 의원, 간사 정종삼 의원)
- 교섭단체별 위원 현황
 - 한나라당 7명(최윤길 의원, 한성심 의원, 박영애 의원, 정용한 의원, 이순복 의원, 홍석환 의원, 이재호 의원)
 - 열린우리당 4명(정종삼 의원, 정재진 의원, 김해숙 의원, 윤창근 의원)
 - 민주노동당 1명(최성은 의원)

릴레이 탐방(3) - 경제환경위원회

“탁상행정 아닌 발로 뛰는 위원회”로 지역경제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 다할 터...

성남시의회에는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경제환경위원회'다.

봄을 여미는 따사로운 햇빛과 함께 경제환경위원회 창문을 두드려 본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의하면 경제환경위원회는 성남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중 자원관리과·환경보전과·녹지공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성남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 살림과 쾌적한 환경 조성 등 성남 시정의 기둥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환경 분야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위원회라고 이해하면 된다.

경제환경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중, 김해숙, 김현경 의원 9명이다.

제5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문길만 위원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서는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겠으며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일념으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경제활성화와 경제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실버 일자리 등 고용창출을 늘려 서민가계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5대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에서는 2007년도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심사를 2006. 12. 1 ~ 12. 11(12일간)에 걸쳐 마침으로써 명실상부한 상임위원회의 으뜸 위원회로서 그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희망의 돼지해인 2007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제142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유통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상정 건은 상위법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소규모 유통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며 심사보류 의결하였다.

경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지난해에 못다한 일들을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하나하나 챙기고 문제점을 도출,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지원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길만 위원장은 "지역현안문제와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형식이 아닌 손수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성남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경제환경위원회는 우리 성남시의 든든하고 믿음직한 위원회로 거듭나고 있다.

성남시의회 홍보자료팀
729-5540~1

다음 호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찾아갑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제141회 정례회 의정활동 모습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

청소년수련관 News

사랑의 에너지 헌혈, 청소년페스티벌 개최



올해로 6회째인 '2007 성남시 청소년헌혈 페스티벌'이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4월 29일(일 12:00~18:00)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열린다.



수정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기획동아리와 자원봉사 동아리 '토리'

는 이날 헌혈캠페인, 헌혈자료 전시, 헌혈 참여 등을 통해 시민들이 헌혈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부대행사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진행하는 참여부스 △혈액형별 잘 먹고 잘 사는 법, 함께해요! 마인드맵!, 땅따먹기 △힙합댄스, 응원댄스, 아카펠라, 어린이 무술단 등의 무대공연 △즉석퀴즈 등 관객 참여 이벤트가 마련된다.

한편 4월 14일(토)과 28일(토) 13:00~17:00 희망대공원 신규 분수광장에서는 토요일 문화마당 '봄날! 꽃으로 활짝'을 개최한다. 행사 당일 12시부터 선착순 현장접수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 740-5260~4

가족생활체육대회 4월 14일 개최



가족의 체력증진과 스포츠정진을 고취시키기 위한 가족생활체육대회가 4월 14일(탁구)과 28일(배드민턴) 열린다. 대상은 청소년 및 가족 2인 1팀으로 탁구는 4월 10일까지, 배드민턴은 4월 24일까지 접수받는다. 수련관 직접 방문해 참가비 1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4월 7일(토 14:00~17:00) 수련관 1층 열린마당에서는 '아재! 아재! 해피밴 데이' 프로방스 칠판만들기가 진행된다. 4월 2일부터 4일까지 방문접수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783-4300(내선 307, 40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봉사자 모집

일반학교 특수학급재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후 4시~8시 30분, 토요일 오후 1~5시(2, 4주차는 오전 10시~오후 3시)이며, 봉사자 업무는 장애청소년 수업지도 보조, 식사·생활·과제·귀가지도 등이다.

일일·청소년자원봉사자도 신청가능하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 781-6184

| 기자의 교육 읽기 |

우리 아이 남보다 잘 키우려면?

엄마의 손에 이끌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둘째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들어갔다. 교복을 사고 참고서를 고르고, 내 마음이 아이보다 더 설레고 조급해진다.

"빠르게 키우기보다는 바르게 키우고 싶다"는 어느 광고 문구가 문득 떠오른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가끔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영어도 남보다 먼저, 구구단도 남보다 먼저, 무슨 일이든 남보다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엄마들은 극성(?)을 부리게 된다.

그래서일까, 요즘 같은 새학기엔 학원가나 서점에 가고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를 찾는 학부모들의 발길이 바빠진다. 어느 학원을 다니느냐, 몇 시간씩 공부를 시키느냐 등등 엄마들의 관심사는 온통 아이의 공부에 쏠려 있다. 어떤 것이 진정 우리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일까?

그리 오랜 경험은 아니지만 아이 둘을 키우면서 알게 된 진실 한 가지는 이렇다. 남보다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꾸준히 시킬 때 더 많은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다.

흔히 우리 교육을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에 비유를 한다. 그렇다. 우리 아이들은 십여 년간을 꾸준히 달려야 하는 마라톤러들과 같다. 출발이 다소 늦었다

해서 그 아이가 꼴등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중간 중간 지점에서 물도 주고, 포기하려 할 때 힘차게 한 번씩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할일이 아닐까.

박혜정 기자 misop215@yahoo.co.kr



기획 연재

은비·금비네 입양일기 (3)

은비는 2003년 8월 생후 100일만에, 금비는 2004년 4월 생후 2주만에 김태원·엄양순 부부 가정에 연년생으로 입양돼 사이좋은 자매로 크고 있다.

은비 금비와 지내다 보면 얼마나 웃을 일이 많은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아이들의 재롱에 속상한 일은 잊게 된다. 며칠 전 아이들을 재우려고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를 살피고 책을 읽어 주려고 고르고 있는데 은비가 금비에게 물어본다.

"금비아~ 너는 누가 제일 예뻐?"(은비) "아빠랑 엄마랑 언니랑"(금비) "엄마~ 엄마는 누가 제일 예뻐?"(은비) "엄마는 은비랑 금비랑"(나) 여기까지 하고 잠시 멈췄는데 바로 은비가 뒤이어 말한다. "여보랑 깔깔깔..."

요즘은 은비는 이렇게 내 말을 흥내 내고 싶어 한다. 아빠한

테 전화가 와도 은비가 대신 "여보 식사했어요?" "당신 조심해요" 말하고는 재밌는지 연신 깔깔댄다.

어제 저녁 잠자리에선 은비와 금비가 누워 있다가 은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금비를 쳐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금비아, 언니가 너한테 하나 물어 볼 게 있는데 잘 들어봐~" 하면서 말을 꺼낸다. 가만히 들어보니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이 말이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은비가 얼마나 정색하고 말을 하는지 내가가

긴장했다. 엇그제 새벽 두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세시 경에 금비가 잠이 깨서는 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가져다 주었더니 또 이런저런 요구를 한다. 내가 너무 졸려서 큰소리로 "그만 자!" 하고는 금비의 칭얼대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아침에 금비가 침대 매트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잠이 깬다. 금비를 안아주면서 "금비아아프지? 엄마가 미

안해" (밤에 자다가 야단친 것이 생각나서) 했더니 금비가 울먹이며 "침대에서 떨어진 건) 엄마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한다.

이제 네 살인데도 금비는 자기 실수로 침대에서 떨어졌으므로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놈! 그냥 잠결에 엄마가 미안해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는 거! 뭘 그걸 다 수정을 해주냐?' (다음호에 계속)

- 은비·금비엄마 -



자료제공: 동방사회복지회 성남아동상담소 747-5453, 5036(24시간 상담) 국내입양, 미혼모 무료숙소·분만 상담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 보장)



제43회 도서관주간 맞아

백일장, 인형극 독후감상화대회 등 다양한 행사 열어

4월 12일부터

‘도서관’ 하면 당연히 책을 먼저 떠올린다. 그동안 도서관은 책 빌리고, 시험공부나 하던 ‘조용한’ 장소였다. 그러나 요즘 도서관은 영화를 상영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를 무료로 열어 지역 사랑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도서관의 변신에 대해 어떤 이는 도서관도 진화하고 있다고 했던가.



오는 4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43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성남지역 각 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www.sncentrallib.or.kr

어린이 전문 출판사들의 다양한 액자들로 구성, 어린이들이 흥미있게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그림책 액자 전시회’가 4월 12~26일(15일간)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 ‘효성스러운 호랑이’ 인형극 공연(12일 16:00 ~ 17:00)이 시청각실에서 펼쳐지며 △ 유아 동화 읽어주기(12일 10:30 ~ 11:30)와 △ 유아를 위한 동화구연(13일 10:30~11:30)을 모자열람실에 마련해 놓고 있다.

또 17일 10:30 ~ 12:00 시청각실에서는 △ ‘공부 잘하는 독서기술’이란 주제로 남미영(독서교육 전문가, 한국독서교육개발원 원장) 작가의 강연과 이용자가 추천하는 책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책’ (12~18일 09:00~18:00) 등의 행사를 1층 로비에서 갖는다.

이 밖에도 △ 독서클리닉 특강-난독증을 중심으로(16일 10:00) △ ‘장애인 이해’ 특강(14일 14:00)이 진행된다.

자료봉사과 정보봉사2팀 729-4893

분당문화정보센터
www.snbundanglib.or.kr

△ 동화구연을 듣고 주인공을 종이접기로 만들어보는 ‘동화속 주인공 접기’ (4.17 15:00~18:00) △ 동화체험 책만들기 (4.13 15:00~18:00) △ 릴레이식 책 읽기 ‘독서 이어달리기’ (4.12~6.30) △ 이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한권의 책을 정해 함께 읽어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행사 ‘원복원라이브러리’ (4.12~12.30) △ 도서관 전시회 (4.12~18)를 마련하고 있다.

정보봉사팀 729-2574



수정문화정보센터
www.snsujeonglib.or.kr

△ 4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글씨 클리닉 특강이 있고 △ 13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서 음반 의류 상품 등 물품을 교환하는 벼룩시장을 도서관 앞마당에서 열며 △ 사진전과 특별영화상영, 과일호 잡지 무료배부도 실시한다. △ 14일에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도서관 안내와 추천도서 목록을 배포하고 도서관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 제6회 가족백일장 대회를 14(토) 오전 11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성남시민, 관내 초등(3학년이상), 중·고등·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가신청은 4월 1일까지 방문·팩스·인터넷으로 받는다.

정보봉사팀 743-9600

중원문화정보센터
www.snjungwonlib.or.kr

△ 제5회 독후감상화대회(16일 15:00)를 개최하며, 참가부문은 유치부(5~7세)·초등부(1~3학년)로 3월 20일~4월 12일 홈페이지 접수한다.

또 △ 도서관 환상 체험 매직쇼가 14일(토 10:30)에 열리며, 특별 강좌로 △ 우리아이 논술력을 키워주는 스스로학습법(14일 10:00, 선착순 인터넷 접수) △ 소핑몰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방법을 위한 인터넷 소핑몰 창업하기(14일 14:00, 선착순 인터넷 접수) △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 대상의 책 만들기 강좌, 엄마랑 홈스토리북(home story book) 만들기(14일 14:00, 선착순 인터넷 접수) 등이 열린다.

정보봉사팀 752-3916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BOOK 게시판

공공도서관 도서기증 연중 실시

새봄을 맞아 각 가정에 사장되어 있는 도서를 기증받고 있다. 대상 도서는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3년 이내 출판된 도서, 보존 가치가 있는 고서, 성남관련 향토자료면 더욱 좋다. 기증된 도서는 문화소의 시설에 재기증된다.

성남시중앙도서관 729-4876
분당문화정보센터 729-2569
수정문화정보센터 743-9600(내선303)
중원문화정보센터 752-3915
경기도립성남도서관 730-3537

시각장애인 방문대출 서비스 안내

시각장애인·약시자를 위해 점자도서·녹음도서를 직접 집으로 방문,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FAX,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번에 5권, 대출기간은 3주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일반 장애인들에게는 무료 책배달 ‘두루두루’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도서대출 통로를 다양화하고 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분당분관 729-2577

소외계층 찾아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확대 운영

2004년부터 시작된 독서치료가 올해는 노인, 장애인, 독서부진아 등으로 대상을 확대, 위스타트마을,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월 5일부터 700여명의 독서치료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30개 강좌(4개월 과정)를 진행한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자료봉사과
정보봉사팀 729-4882

책 테마파크 개관 1주년 기념

성남 국제 북 아트페어

국내 최초로 탄생한 책을 주제로 한 공원, 책 테마파크가 개관 1주년을 기념 4월 21~30일 율동공원 내 책 테마파크에서 국내 최초로 세계 북 아트페어를 개최한다. 북 아트 초대전, 북 아트 퍼포먼스, 다양한 체험행사 등으로 꾸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날 수 있다.

책 테마파크 708-1688, 3588

책 읽는 가족
중원구 하대원동
민주네

“읽고 싶은 책 맘껏 읽는 게 소원” 식구 모두 도서대출증 갖고 독서 생활화

“책 좀 그만 읽어라.” 이런 말은 보통의 가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말이다. 어떻게든 한권의 책이라도 더 읽게 하려고 애를 쓴다면 모를까 그만 읽으라니. 그러나 중원구 하대원에 사는 1남2녀를 둔 김경영(50) 씨 덕에선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

민주 어머니 문성자(45세) 씨는 “제가 먼저 읽어보고 괜찮은 책이나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아이들에게 권해 줍니다. 그러나 민주는 책에 한번 빠지면 빌려온 책 모두를 한꺼번에 읽으려 하죠. 책을 많이 보는 것은 좋지만

공부에 지장을 줄 때도 있어 이제는 공부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읽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어려서부터 언니를 따라 초등학교 도서관에 들락거린 것이 계기가 되어 책 읽는 습관이 들었다는 민주(12·대하초등6년)는 장르를 가리지 않으며 사오백 페이지의 두꺼운 책도 하루 만에 다 읽어 버리는 독서광이다. 자신의 도서대출증만으로는 부족해 가족들 것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방학 때에는 일주일에 10권 정도는 무난히 읽는다.

민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읽고 싶은 책을 맘껏 읽어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엄마를 비롯하여 가족 모두 도서대출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민주네 가족은 독서가 생활화되어 있다.

올해 송실대 영문학과에 입학한 큰딸 김민주 양은 “논술을 위해선 어려운 철학책을 한권쯤 권해주고 싶어요. 어려운 책을 읽고 나면 이해력이 빨라져 쉬운 책은 술술 잘 읽혀져요. 당연히 수능 볼 때 도움이 되죠. 저는 시간절약을 위해 학원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쪽이 더 편한데 이것도 독서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라며 TV나 컴퓨터보다는 독서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준 엄마가 고맙다고 한다.

“공부도 배경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미술사는 딱딱한 설명과 주요작품만 소개되어 있지만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읽었던 내용이 바탕이 되어 설명과 내용

이해가 쉽죠. 세계사와 국사도 인물을 알고 시대 배경을 알게 되면 고대·근대·현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유



추해내는 면에서 용이하죠.” 서울대 경영학과에 목표를 두고 있는 둘째 김동문(풍생고 2년) 군도 거든다.

이 가족이 독서를 생활화하게 된 데에는 부모님의 힘이 크다. 어디를 가든 항상 손에 책이 들려 있는 엄마와 문화센터에서 우수 회원 자격교육까지 받아 더 많은 양의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도와 주며 책 대출과 반납을 기꺼이 맡아 해주는 아빠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독서는 핵가족화된 현대가정

이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소원해진 가족간에 공통의 대화거리를 제공해 준다. 때문에 상을 앞에 두고 둘러 앉아 책을 읽거나 가족끼리 대화하는 모습이 민주네 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다.

민주네 가족의 독서생활화 원칙을 살펴보자. 첫째, 시간이 없더라도 일단 책은 빌린다. 둘째, 짬날 때마다 읽는다. 셋째, 빌린 책은 가족 모두가 돌려 본다.

박경희 기자 pkh2234@hanmail.net



우리 동네 도서관 중원구 아름빌도서관

우리 집 거실을 그대로... 꿈이 머무는 작은 공간

중원구 하대원동 아름빌 APT 단지에 가면 우리 집 거실의 편안함을 옮겨놓은 듯한 작은 휴식 공간이 있다. 책을 사랑하는 주민 30~40여 명이 지난 2005년 6월 설립한 아름빌도서관.

면적 201㎡에 열람석 50석, 총 7천여권의 책을 갖추고 APT단지 내 회원 1,500세대 6천여 주민뿐 아니라 인근주민, 특히 어린 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서가는 월~금요일 오후 1~5시 이용할 수 있고, 독서실은 매월 선착순 30명을 선정해 새벽2시까지 이용가능하다.

특히 삼성문화재단과 책읽는사회에서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대상에 선정돼 어린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여러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책 정리에 새벽2~3시도 마다않던 이곳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박은정 관장은 “연령별 독서모임을 꾸준히 운영하는 데 힘씀으로써 정해진 개관시간 외에도 기존 도서관이 지원하지 못하는 야간이용·품앗이 교육 등 어린이와 학부

모가 실제 원하는 새로운 교육·독서문화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 책 1권을 갖고 와 등록하면 아름빌도서관 회원이 된다. 단지 내 아파트 주민에겐 대여도 하지만,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방문이용만 허용된다. 하루평균 4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80여 권의 책이 대출된다.



방학 때는 주부학습동아리, 학년별 바둑·논술·영어·책읽기가, 봄·가을로는 벼룩시장처럼 책·의류 나눔의 행사도 진행한다. 도서관 운영은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는데 봉사를 원하는 분은 주

민자치회나 부녀회에 문의하면 된다.

자원봉사자 장은정(34) 주부는 “한마음 한 뜻으로 만든 우리 도서관에 애착이 간다”며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이웃과 한 가족처럼 친밀해졌고 학부모들끼리 아이 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한다.

각박한 현대사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아름빌도서관에서는 3월 추천도서로 ‘인생수업’과 ‘배려’를 꼽았다.

굳이 먼 도서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편안한 차림으로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동네 도서관은 이제 우리 집 거실과도 같은 쉼터이다. 현재 시에는 이런 작은 마을 도서관이 30여 곳 있다.

“TV를 꺼라 인생이 바뀐다.” 도서관 게시판의 이 글귀처럼 이제부터 이곳에서 책을 친구 삼아 넓디넓은 세계로 항해를 떠나 보는 것이 어떨까. 자~ 꿈의 세계로 출발!

아름빌도서관 751-2708

황연미 기자 hwang9657@hanmail.net

도서관에서 노는 법 TOP 100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도서관에서 즐겁게 노는 법은? 어학공부하기, 내가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알아보기, 잡지 공짜로 보기, 인터넷 공짜로 하기 등 그 방법 100가지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www.GoLibrary.go.kr).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800만권의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책을 검색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웃대출서비스로 도내 다른 도서관의 책도 우리 도서관의 책처럼 빌려볼 수 있다.

전자책으로 내 아이에게 딱 맞는 공부법(저자 비버리 앤 친), 김덕수 교수의 통쾌한 경제학, 칼의 노래1(만화) 등 흥미있는 책도 만나볼 수 있다.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249-5237~9

장수 위한 한의학 양생 IV

음식양생

땅의 기운으로 내 몸을 기른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몸을 생장 발육시키며 생명을 유지한다. 평생 먹고 살 일,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우선 잘 먹어야 한다. 곡다육소(穀多肉少)를 기본으로 곡식·과일·고기·채소 등을 조화롭게 배합하여 고른 영양분을 섭취한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현대는 가공된 인스턴트 음식이 범람하니, 이들의 독소를 피해야 한다.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이 담겨있는 싱싱한 자연물, 몸을 맑히는 채식류 등이 좋으며, 내 체질에 맞는 음식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면 좋으리라. 또한 오미(酸苦甘辛鹹)와 기(寒溫)를 조화롭게 한

담담한 음식을 섭취한다.

식사를 거르지 않으며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규칙적 식사로 몸의 리듬을 살려가야 하는데, 식사 시간이 지났으면 차라리 쉬어주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것이다.

음식의 양은 소식(少食)이 좋다. 요즘은 못 먹어서 병이 되는 것보다 많이 먹고 함부로 먹는 것이 더 병이 된다. 또한 조반석죽(早飯夕粥)의 원칙으로 아침·점심에 비해 저녁 식사의 양을 줄여보는 것도 좋다.

음식은 천천히 잘 씹어 먹는다. 음식물을 잘 씹으면 소화를 돕기도 하지만 공복감을 덜어 주어 폭식과 대식을 막

아 준다.

야식(夜食)은 우리 몸을 가장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다. 불규칙한 식사로 몸의 리듬을 잃게 하며 소화장애 수면장애 비만 피로감 등을 갖게 하니 야식만은 꼭 끊어야 한다.

위장은 미주 신경의 지배를 받는 예민한 장기로, 잡념을 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즐겁고 편안한 음악으로 음식의 소화를 도우며, 식사 후 10분간 몸을 느끼며 쉬고, 복부를 마사지해주며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민상준 · 분당구보건소 공중보건과
* 다음 호엔 마지막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이 게재됩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지원을 위해 불임가정에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시술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2인가족 기준 470만원)이며, 1회 시술비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지역보건팀: 수정구 729-5172~3, 중원구 729-5272, 분당구 729-5372/74

‘사랑의 안경나눔센터’ 운영

성남시안경사회와 협력,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1종우선),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소년소녀가장, 가정방문대상자, 독거노인 가운데 시력저하 등으로 안경이 필요하신 분께 무료로 안경을 맞춰준다. 매월 보건소별로 선착순 15~20명을 예약 접수받아 둘째 주 목요일(수정구보건소), 넷째 주 목요일(중원구보건소)에 실시한다.

보건소 의약물관리팀: 수정구 729-5471, 중원구 729-5481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무료 치과진료가 시 거주 중증 장애인(1·2급) 중 의료보호1·2종 환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1회 실시된다. 3월 30일까지 전화·방문접수 받는다.

중원구보건소 729-5288

개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안내

4월 4일부터 14일 생후 3개월 이상된 건강한 개를 대상으로 관내 동물병원 60개소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 접종받으면 된다.

농촌동(북정, 신촌, 고동, 시흥, 운중, 서현동 일부(울동), 금곡동 일부)는 해마루동물병원(분당구 서현동 272-5 전화 781-2992) 시 지역경제과 측정팀 729-3782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4월 프로그램

일시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4.5/12/19/26 (목) 20:00~22:00	아름다운 동행 I~IV	기혼부부 10쌍	자아 및 배우자 이미지 재구성, 행동변화 요구방법, 분노해결방법 습득 등 이마고 부부치료를 통한 부부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4.21/28 (토) 15:00~17:00	우리아이 키크기 대작전 I "키와 영양" II "키와 운동"	초등자녀를 둔 2인 이상 가족 10가족	가족과 함께 키 크는 식단표 만들기 체조활동을 통한 가족건강 증진 프로그램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 755-9327

가족상담실 운영

전화상담 755-9329 · 사이버상담 snfc.familynet.or.kr · 면접상담 · 심리검사 · 집단상담(사전예약) 755-9327
* 아이돌봄지원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4월부터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비를 파견한다. 이용대상자는 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시 거주 가정으로 기본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 1만원이다. 회원 등록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755-9327

“당신의 정신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날 행사 4월 4일(수) 서현역 로데오거리서



4월 4일 정신건강의날을 맞아 “당신의 정신건강은 안녕하십니까?”를 모토로 지역 주민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풍성한 행사가 오후 1시 30분~5시 서현역 로데오거리(5번출구)에서 열린다.

3개구 보건소가 주최하고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알코올상담센터·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등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간이정신건강척도로 정신건강 상담을 비롯해 정신건강관련 센터 안내, 정신건강의 중요성

을 인식할 수 있는 판넬 전시 등으로 꾸며지며, 이벤트로 성남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신건강문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인지도 조사가 실시된다. 정신건강의날은 숫자 “4”가 불길한 의미를 지녔다는 문화적 편견을 깨듯이 정신장애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없애자는 뜻이 크다. 이날 함께 동참해 자신의 정신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기회를 가져 보자.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754-3220

무료 ‘암’ 검진, 미리미리하세요!

해마다 12만명이 발견되는 암 환자.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암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이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국가에서 암 검진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보자.

검진대상자(2007년 국가암조기검진 안내문을 받은 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www.ncc.re.kr에서 대상자 확인가능)이며,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민원마당/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5대암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비급여항목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암환자와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보건소 건강증진팀: 수정구 729-5182,4 중원구 729-5281, 분당구 729-5381

여성 발명가 박 향 씨 | 한국여성발명가협회 성남·용인지부장

“머리 지압 받다가 지압베개 만들게 됐어요”

발명과 시(詩)는 동일... 생활 속 새로운 것 찾아내



일상에 파묻혀 바쁜 생활을 하는 일반인에게 ‘발명’ 이라 하면 나오는 상관없는 일로 일찌감치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기가 보통이다. 그러나 사실 발명이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생활을 하다가 불편한 점들을 조금씩 개선시킨 아이디어가 바로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한국여성발명가협회 성남·용인지부장 직을 맡고 있는 박향(60·분당구 궁내동) 씨를 만나 그의 발명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어느 날 손가락 끝으로 머리를 강하게 눌러 지압을 하는 스포츠 마사지를 받다가 지압 베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는 베개의 한 면에 지압 돌기들이 있게 하여 베면 지압효과가 있게 하고, 돌려서 베면 보통 목침이 되는 오동나무 베개를 만들었다. 그 후 베개 속에 집안에 있는 보석들을

숨겨 놓을 수 있는 보석함을 만들어 넣어 보석함이 내장된 베개를 또 만들었다. 이 외에도 여성의 좌욕용으로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쑥 화수기’, 먹다 남은 맥주나 음료수의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게 병을 거꾸로 세워놓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병 받침대’ 등을 고안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실용신안, 의장 출원해 그녀가 보유한 실용신안·의장만도 9건이나 된다. 몇 년 전엔 자신이 점심시간을 이용, 고안한 지압 베개로 사업을 해서 째깍 수입도 올렸다 한다. 예사롭지 않은 경력의 그녀이지만 지난 긴 세월 동안 그도 남편과 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주업으로 하는 평범한 주부였다. 아들이 장성하여 유학을 떠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발명을 시작한 것. 한창 발명에 몰두할 때면 발명에 빠져 산다고 할 만큼 어디를 가든

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아이디어에 관련해 사물을 보게 된다고 한다. 아이디어를 찾는 발명가들이 흔히 그렇듯 그녀의 관심사도 실은 다방면에 뻗어있다. 전업주부로 있는 동안 틈틈이 주역 등을 읽으며 역학을 공부했고, 문학소녀였던 여학생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시작(詩作)도 하여 2004년 문학시대에 등단, 이듬해엔 시집 ‘바람은 혼자 울지 않는다’를 출간하였다. ‘시와 발명은 동일하다’고 그녀는 말한다. 아마도 생활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현재 아들과 함께 편집디자인 기획사 (주)칼리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 그녀는 여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분주하다. 손자를 보게 되면서 아기용품 관련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두 번째 시집도 낼 계획이다. 그녀가 초대부터 회장으로 있는 한국여성발명가협회 성남·용인지부에는 현재 2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회원 대부분이 발명과 관련된 일로 바빠서 자주 모임을 갖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모임 때면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발명이야기로 재미가 그만이라고 한다. 꼭 특허 출원한 발명가가 아니더라도 발명에 관심 있는 성남 여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환갑의 나이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시를 쓰며, 일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꿈 많은 소녀 같았다.

(사)한국여성발명가협회 성남·용인지부장 726-2974 전미향 기자 mhchun@cans21.net

노인주간보호센터 상대원1동 은빛사랑채

노년기 행복 다시 찾자

중풍환자에게 심리·물리 등 재활치료로 소망 줘

최근 경증치매, 뇌졸중(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심신허약 어르신에게 재활치료 등의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직장으로 인한 부모 모시기의 어려움과 저렴한 이용료로 경제적 부담까지 해결해주고 있어 맞벌이부부에게 관심이 높다.

성남시에는 중풍전문 ‘상대원 1동 은빛사랑채’와 치매 전문 ‘청솔노인케어센터’ 등 현재 약 7곳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06년 4월 경기도 1호로 개소한 상대원1동 은빛사랑채는 중풍(뇌졸중·뇌병변·뇌경색),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시 거주 60세 이상의 심신허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고 정서적 안정도 찾아 준다.

정현정 상대원1동복지회관 관장은 “우리 센터는 중풍 전문으로 매일 오전 음악·풍선아트·



미술·원예·웃음치료 등 심리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후엔 물리치료, 발마사지, 작업치료, 운동치료, 재활테이핑, 재활제조 등을 통해 어르신의 잔존 기능을 유지 향상시키고 있다”며 어르신들에게 노년기의 행복을 다시 찾아주고 싶다고 말한다.

이들의 낮 시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쉼기는 윤광일 팀장은 “처음엔 거동도 잘 못하시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센터 차량을 기다리며 빨리 태우러 오지 않는다



고 성화”라며 어린아이같이 반기는 모습에 기쁘다고 한다. 은빛사랑채에는 간호사가 상주해 매일 혈압·혈당·체중·체온을 측정해 건강을 관리하고, 매월 외부 병원 진료 서비스를 비롯해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등 개인 위생서비스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 준다. 또 부양가족은 어르신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어 가족생활



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준다. 중풍으로 쓰러져 유행성 뇌출혈 감염에 우울증까지 동반한 김재원(76) 어르신은 시골에서 혼자 지내다 현재 따님이 돌보는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센터를 찾게 되었다. 웃음치료로 많이 호전돼 “혼자 격리되어 있다가

지금은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 좋다”며 아프지 말고 건강하라며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챙겨 줄 정도다.

이곳 센터 이용시간은 월~금 오전 7시~오후 8시이며 센터 차량으로 모셔오고 모셔간다. 이용료는 일반인은 월 16만원 정도로 저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다. 입소희망자가 대기자명단에 등록하면 보호자 상담과 생활적응 기간을 거친 후 입소가 결정된다.

자녀들은 부양가족을 염려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해나가고, 부모들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노년기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 이곳에 오면 작은 소망이 보인다.

상대원1동복지회관 747-3038 박경옥 기자 qkdl9090@hanmail.net

기획연재/ 성남이야기(2)

개발과 보존의 현장 - 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분당에서 서울방향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나가다 보면 판교택지개발사업이 한창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건설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어느새 눈앞에 보이던 언덕이 사라지고 길이 수시로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와중에도 굴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언덕도 있는데 그 언덕에는 대부분 하얀 비닐하우스(사실 비닐하우스라 부르기 좀 큰 것이긴 하다)들이 줄지어 서있다. 도대체 이 하우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판교 개발과 어떤 상관관이 있는 걸까?

필자가 일하고 있는 토지박물관은 판교개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소속되어 있다. 또 박물관이다 보니 누구보다도 유적의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매번 개발과 보존이라는 기로에서 고민과 갈등에 놓이게 된다.

이런 고민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각종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양상도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져만 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겨울이 되면



발굴조사 기관의 연구원들은 대부분 연구실에 들어가 학술 보고서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시기에도 현장 발굴조사를 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겨울에도 발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눈도 피하고 땅이 얼어붙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앞서 말한 초대형 비닐하우스들이다. 이런 하우스도 발굴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처음에는 조그만비닐하우스수준이던 것이 거의 웬만한 운동장(Stadium) 수준에 육박하는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

판교지구도 시굴조사만 25만평 정도를 실시하였고 아직도 진행 중인 발굴조사는 약 5만5천평 정도를 진행하는 대규모 유적조사 현장이다. 이미 분양은 진행되었고 그 공급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사실 글을 쓰거나 읽는 입장에서는 쉽게 유적의 보존 등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결코 쉽게 결정되고 실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며 진행되는 개발 및 분양과정에 밖으로 드러난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판교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초대형 비닐하우스들은 이러한 노력의 한 단면임을 웅변하고 있다.

토지박물관 738-8995 최형균 · 토지박물관 학예사

깨끗해서 살기 좋은 상대원2동 '양심거울'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줄어

주민이 솔선수범해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노력, 지저분하던 상대원2동이 최근 새롭게 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박석홍 동장이 부임해 와보니 동네가 시골분위기는 나지만 주변환경이 너무 지저분했다. 주민 스스로 솔선수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던 끝에 '양심거울'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11월 2992-6번지 등 5개소에 양심거울을 시범 설치한 결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용량이 2개월 만에 1톤에서 0.2톤으로 줄어드는 등 몰라보게 주변이 깨끗해졌다. 성과가 좋아 앞으로 11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모 주민은 불법투기를 하려하다가도 양심거울을 바라보면 차마 버릴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건우) 호랑이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있어 온 동네를 청소하자며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있고, 매월 두 번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단,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동에서는 솔선수범해 '깨끗한 골목 만들기'에 노력하는 통장과 주민을 상·하반기에 각각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상대원2동 관내에는 모두 120개소의 골목길이 있다. 통장·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새마을남녀회장이 전 지역을 돌아 보고 평가하는데 지난 연말에는 '깨끗한 골목'으로 선정된 골목길 초입엔 수상현판도 부착하고 담당 통장에게는 현금 5만원(3명)을 지급했다.

받은 상금 또한 주민들에게 나눠줄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사용돼 깨끗한 골목 만들기에 보



탔이 되고 있다. 노력 끝에 결실을 맺는다고 2006년도 성남시 청소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동(45개 동 중 1위)으로 선정됐고, 또 2006년 시정시책 종합평가 2위, 주민자치분야 평가 역시 2위에 오르며 깨끗한 대원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대원2동 750-2942 박문숙 기자 moons4326@hanmail.net

지금 우리 동네에선



이매1동 주민자치센터, 수지침 봉사 인기

분당구 이매1동 주민자치센터의 '수지침봉사단'이 경로당 순회방문 봉사활동을 매월 한번씩 전개하고 있다.

수지침 프로그램의 김기영 강사와 수년째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12명으로 구성된 이매1동 '수지침봉사단'은 관내 경로당 12개소를 순회방문해 어르신에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한 간단한 처치술과 건강 유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3월 5일 방문 때 이매촌 삼성경로당 이금련 노인회장은 "발이 잘 안 퍼졌는데 침을 맞고 많이 좋아졌다"고 했으며 참석한 20여 어르신들도 "봉사단이 매일 같이 와주면 좋겠다"며 즐거워했다. 5월엔 집중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매1동은 3월 15일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2007년 봄호(통권7호·타블로이드판 4면) 1만부를 발행했다.

이매1동 행정민원팀 710-2792

정자동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분당구 정자2동은 올해 동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 법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7일부터 매월 1,3주 수요일에 법무법인 '신문고' 소속 변호사가 동사무소에서 채무관련·이혼 및 상속·계약·공증 등 일반인에게 어려운 법률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영구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월 2회로 늘려 지속적인 법률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에 동사무소에 상담신청하면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자2동 주민생활지원팀 710-2755

분당구, 시민생활강좌 무료 개설

분당구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생활 지원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수강신청자 180명을 대상으로 분당지역 전문가를 초빙, 4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네 차례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내용은 부동산 관련법(법무법인 서현 나도연 변호사),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분당제생병원 김정훈 정신과전문의),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 정선화 센터장), 재정설계를 통한 자산축적(한국투자증권 김균 재테크팀장) 등으로 꾸며진다.

강좌 참석희망자는 3월 28일까지 구청 총무과에 전화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분당구 총무과 자치지원팀 710-2331~2



보물 텃밭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 나이 사십이 되도록 김장은커녕 김치 한 번 제대로 담가본 적이 없다. 자식사랑 지극하고 부지런한 부모님 덕분에 사시사철 쌀·김치는 물론 밑반찬까지 친정과 시댁에서 가져다 먹기 때문이다. 그게 당연한 듯 철없는 난 점점 게을러졌고 김치가 맛있으며 바쁜 부모님 일손에 더 부채질만 해댔다.

그러던 내 생활에 변화가 시작된 건 2년 전 텃밭이 생기면서였다. 이런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우리 텃밭은 직업군인인 남편 덕에 얻은 큰 혜택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 남들은 재미로 알겠지만 농부의 딸인 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내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휴일마다 밭으로 향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얼굴은 까맣게 그을린 채 비 맞은 것처럼 온통 땀에 젖어있었다. 그 정

성에 못이기는 척 난 선크림에, 장갑에 완전무장을 하고 남편을 따라나섰다.

처음 본 밭은, 남편의 땀이 그대로 배어있는 하나의 작품이었다. 온갖 채소들로 가득한 밭을 보면서 그동안 몰라라 했던 게 내심 미안했다.

그 후 우리 밥상은 초록빛이 가득했고 육류만 찾던 아이들도 강된장 바글바글 끓여 찜밥 먹는 즐거움을 알아갔다. 가지며 호박이며 고추며 볶고 지지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군침이 돈다. 시장에서 사먹는 야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향과 맛이 있었다. 여름과 가을엔 감자·고구마를 캐서 많지는 않지만 이웃과 나눠먹는 즐거움도 만끽했다.

제일 큰 보람은 내손으로 키운 배추로 김장을 한 일이다. 물론 이웃의 도움을 받았지만 나와 남편은 식사할

때마다 대견하고 뿌듯해서 먹기조차 아까워했다. 진작 우리 엄마한테도 이런 마음이었다면 정말 '효녀'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햇살 아래 벌써 줄음이 밀려오는 봄이다. 올해는 무얼 심을지, 모기는 얼마나 물릴지, 지렁이 보고 비명은 얼마나 지를지, 내심 걱정도 된다. 농부들이 볼 땀 정말 소꿉장난 같은 농사이지만, 우리에게 텃밭은 그 어떤 땅보다도 소중한 경험과 시간,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준 공간이었다.

한달 후 화창한 휴일이면 우리 부부는 또 그렇게 삼남매를 앞세워 호미 하나씩 챙겨들고 밭두렁을 걷고 있을 것이다.

이미경 · 수정구 창곡동

그리워질 보건 선생님과 그녀의 텃밭

3월이면 근무지가 바뀐다. 보건 선생님과 이별은 유난히 더 슬프다. 특히 빈혈로 고생하던 나는 그녀의 주요 관찰대상이다 보니 그 앞에선 어리광이 늘어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조금만 소화가 되지 않아도 정성 어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더 슬픈 이유는 그가 내 건강뿐 아니라 우리 집 식탁까지도 신경을 써 주었기 때문이다.

“이행숙 선생님, 집이지? 그럼 5분 후에 밑으로 내려와.” 보건 선생님과 나 사이는 그랬다.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끝

는 반말이다. 잠시 후 황토색 승용차가 보이고 별걸개 단 얼굴로 내리는 그의 두 손엔 커다란 비닐봉지가 매달려 있다. “요즘 쌈이 한창 맛있어. 삼겹살 구워서 싸 먹어.”

그는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이른 새벽과 퇴근 후 울동공원 옆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텃밭을 가꾸며, 수확물을 아낌없이 주변에 나누어 준다. 그 특별한 채소를 얻어먹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휴일이면 상추, 치커리, 당근, 고추, 오이, 부추, 아욱, 가지 등 이름도 모르는 채소들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는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푸성귀로 우리 집 식탁에선 풍성한 삼겹살 파티가 벌어지곤 했다.

주중에는 퇴근 무렵 그를 따라가서 텃밭의 야채를 직접 뽑거나 따는 기쁨도 누렸었다. 그는 주말농장 주인으로부터 ‘가장 잘 키운다’는 칭찬을 들

을 만큼 누구보다 정성을 기울였다. 그럴 때마다 난 우리도 텃밭을 가꾸자고 남편을 졸라보지만 그는 내가 좀더 건강하고 여유로워진 후에 하자며 거절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임을 알기에 번번이 주저앉으며 몇 년째 그의 텃밭에서 길러진 채소를 먹어왔는데 이제 직장을 옮겼으니 그것마저 이별일 것만 같다. 그의 텃밭이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다른 곳에 다니는 나에게까지 혜택의 손길을 뻗어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얽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난 내가 빨리 텃밭을 가꿀 수 있기만을 꿈꾼다. 그때가 되면 나도 것처럼 농사를 잘 지어서 이곳저곳에 야채를 실어 나를 수 있으리라! 분당동에 살면서 일부러 서현동까지 애써 가꾼 야채를 실어다 주던 그 정성을 기억하며 나는 어디까지 실어 나를 수 있을까?

이행숙 · 분당구 서현동

베란다 속 작은 가족

얼마 전부터 베란다에 작은 가족이 생겼다. 아파트에만 살아서 초록을 접하기 힘들었던 우리 가족을 위해 제가 큰맘 먹고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든 거다. 남편을 위해 상추, 썬갓, 고추를 심었고, 딸아이를 위해서는 예쁜 봉선화와 강낭콩, 토마토를 심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귀찮고 지저분하다며 구박을 했다. “뒹야! 벌레 생겼잖아! 이거 물은 제대로 주고 있는 거야?” 그러던 그가 이제는 밥상을 차릴 때마다 먼저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달려간다. 깨끗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생기기 좋을 수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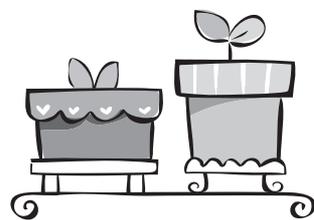
혼자 자라 늘 심심해하는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친구가 생겼다. 올 겨울은 춥지 않아서 그런지 봉선화가 일찍 피었다. 예쁘게

핀 봉선화 꽃으로 손톱에 물을 들여 졌더니 어찌나 좋아하던지... 물들이 손톱 꽃물이 첫눈이 올 때까지 없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했더니 볼까지 빨개진다.

또, 하루가 다르게 벽을 타고 커 가는 콩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하고 토마토가 열리길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우리 아이가 하루 하루 정말로 사랑스럽다.

참, 사는 게 별것 아니다. 집안에 작은 텃밭 하나를 들여놓았을 뿐인데 삶이 매우 풍성해졌다. 베란다 속 가족 덕분에 작은 행복을 맛보고 소중한 여기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한 봄을 맞고 있다. 여러분도 이 봄에 새로운 가족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윤미라 · 분당구 아람동



‘독자 마당’ 안내

이번호부터 ‘글마당’ 코너가 시민 여러분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독자 마당’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수필 외에 독자 의견을 추가로 받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호 글마당 주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전상서’ 수필·공트 형식의 사연을 원고지 5매 이내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주소와 연락처 명시 바람.)

독자 의견·제보 받습니다
(비전성남)을 보신 후의 소감이나 의견, 독자제보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원고 마감: 매월 12일까지
- ▶ 보내실 곳: 비전성남 편집실
 - 이메일: snvision@cans21.net, snvision@hanmail.net
 - 전 화: 729-2714~5

| 문화공감 |

봄의 향연 속으로

봄을 맞아 성남시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연극, 전시 등 봄의 향연이 이어진다. 특히 성남시립예술단과 극단 동선은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봄나들이 삼아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성남시립교향악단 제36회 정기연주회



- 공연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일 시: 2007. 3. 29(목) 오후 7시 30분
- 예매기간: 2007. 3. 28(수)까지

- 가 격: 전석 1만원, 청소년할인 5천원
- 티켓구매: 티켓링크 1588-789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직접구매
- 문의처: 729-5645, 705-8177
- 공연안내: 성남시립예술단 홈페이지 (www.sn-pac.or.kr)
- 공연내용: "한국을 빛낸 젊은 영웅 II"
1부 지크프리트의 목가_ 바그너
2부 교향곡3번 F minor, Op.90 _ 브람스

성남시립합창단 제96회 정기연주회



- 공연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일 시: 2007. 4. 4(수) 오후 7시 30분
- 예매기간: 2007. 3. 23(금)~4. 3(화)

- 가 격: 1천원
- 티켓구매: 티켓링크 1588-789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직접구매
- 문의처: 709-2830, 729-5436
- 공연문의: 성남시립예술단 홈페이지 (www.sn-pac.or.kr)
- 공연내용: 신개념 WELLBEING CONCERT
- "O₂ Concert"(산소음악회)
1부 『명상과 안정』
2부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희망』

연극 <선착장에서>에 초대합니다 '2007 전국 연극제 경기예선대회' 성남대표작품



- 일 시: 2007. 3. 30(금) 오후 8시
- 장 소: 성남시민회관 소극장(031-729-5400)
- 주 관: 성남시연극협회, 극단동선
- 후 원: 성남시, 성남예총
- 관 람 료: 선착순 무료입장
- 작 가: 박근형(극단골목길 대표연출가)
- 연 출: 조성일(성남연극협회장, 연출가)
- 출 연: 김상규, 한중곤, 이주희, 추연선
손병희, 정희훈, 오탕 외 다수
- 공연문의: 극단동선 사무국 756-8430

• 작품해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성격, 다양한 모습의 군상들. 내가 지켜온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안주하고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가슴 한 구석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며칠째 이어지는 폭풍, 그로 인한 육지와 단절이 없었다면 작품 속의 인물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 평화로움 속에서 안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리분지의 백리향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그 안에 감추었던 내면이 드러나는 순간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몽상과 같은 것은 아닐까?

폭풍우 속에서 점차 고립되는 섬의 극한적 상황은 그들이 안주할 수 있었던 그들간의 약속과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만다. 하지만 선착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픔과 과거의 기억을 파도에 던져 버리고 활기차게 일상을 시작한다.

인간의 깊은 속내를 들춰내도 꺼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보여주다가도 자연스럽게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처럼 그려지는 희망이라는 존재를 상기시키게 해준다.



2007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행사개요

- 주 제 미래의 아시아를 빛자
- 일 자 2007. 4. 28 ~ 5. 27
- 장 소 이천세계도자센터, 광주조선관요박물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 입장권 예매 2007. 4. 25(수)까지
시청 문화예술과,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동사무소
- 입장료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예매 시 1,000원 할인)
4인가족 12,000원, 3인가족 10,000원(예매 시 2,000원 할인)



행사구성

구분	전시(5)		교육·체험(6)	공연·이벤트	지역축제	
	세계·국내우수작가 발굴 프로젝트	아시아 도자예술 재발견 프로젝트	도자교육 프로젝트			
이천	국제공모전(조형)	아시아테마 세계현대도자전	키즈워크숍 토아놀이방 흙놀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레이올림픽 - 도자경진대회 - 천년도자기기록남기기 - 흙놀이경연대회 - 아이·노천소성 페스티벌 - 공예업체 이벤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렌지페스티벌 -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 B-boy 페스티벌 - 토아포토제너 - 퍼포먼스 & 프린지 - 토아 캐릭터쇼/페이스페인팅 	제2회 이천 도자기축제
광주	아름다운 우리도자기공모전	동서도자유물의 보고	도자문화실		제10회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여주	국제공모전(생활)	세라믹하우스Ⅲ	도예공예방 흙놀이방		제19회 여주 도자기박람회	

행사안내 031-645-0536

장애인과 함께 달리는 사랑의 마라톤 4월 22일 탄천종합운동장

소외된 장애인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 사랑의 마라톤대회'가 4월 22일(일) 오후 2시 분당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나누는사람들'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각·지체·휠체어장애인과 함께 뛰는 마라톤으로 종목은 하프·10km·5km 등 3개이며 코스는 탄천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이매초등 인도교~북정동 성남시계까지다.

하프·10km·5km 종목의 제한시간은 각각 2시간30분·1시간30분·50분, 참가비는 3만원·3만원·1만5천원이다.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며 종목별 남녀1~9위에겐 시상한다. 4월 5일(목)까지 선착순 2천명을 접수한다.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나누는사람들 707-6770 www.spm1004.com

정.보.나.눔

보내는곳 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성남시청 공보담당관실 | 문의처 <비전성남> 편집실 | 전화 729-2714~5 | 팩스 729-5439 | 이메일 snvision@cans21.net / snvision@hanmail.net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수강생 모집

- 모집대상: 18세이상 여성(성남시민)
- 교육기간: 5. 7 ~ 8. 18(3개월과정)
- 접수기간: 4. 13(금) ~ 4. 27(금)
- 수강과목: 부업·창업·건강 등 20개반 453명 (홈페이지 참조)
- 수 강 료: 30,000원(당일 현금납부), 교재비및재료비는본인부담
- 여성복지회관 745-3071, 745-3072
- www.e-woman.or.kr(지하철 남산성입구역 4번 출구)

성남문화의 집 제2기 무료 수강생 모집

- 대 상: 성남시 거주자
- 강좌기간: 4. 2 ~ 6. 30(3개월)
- 모집강좌: 고전·풍물·서예·댄스 등 19강좌
- 접수기간: 3. 19 ~ 3. 29(선착순)
- 성남문화의 집 751-0644

성남시여성합창단 단원모집

- 모집인원: 약간 명
- 자 격: 만20세~45세 성남거주 여성
- 주요활동: 해외 및 국내외 합창경연대회 참가
- 성남시여성합창단 017-277-2151

성남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비상임단원 모집

- 모집인원: 00명
-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은 학생
- 접수기간: 4. 3(화) ~ 4. 7(토)
- 성남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729-5434, 781-1475

2007년 청소년 "국악협연무대" 참가 오디션 안내

- 참가자격: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 참가부문: 청소년 협연(초·중·고교 재학생) 및 대학생 협연
- 참 가 곡: 성남시립국악단과 협연이 가능한 기악곡(타악·성악 포함)
- 신청접수: 3. 20(화) ~ 4. 3(화) 17:00까지
- 성남시 시립국악단 729-5646(월요일 휴무)
-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www.sn-pac.or.kr

'건강한가정만들기' 상담

- 대 상: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한 상담위탁자 가정폭력/부부갈등/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인
- 접수기간: 3. 23(금) ~ 3. 31(선착순)
- 프로그램: 내모습보기, 분노다루기, 의사소통을 주제로 개별상담/부부상담/캠프상담/정신치료를 진행
- 장 소: 분당구 아담동 여성문화회관 1층

- 성남가정법률상담소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사에게 문의 707-6661~2

재활전문치료센터(수정복지지원)

- 진료과목: 뇌졸중 클리닉, 통증관리, 작업치료, 재활운동, 장애진단
- 진료시간: 월~금(09:00~16:30), 토:(09:00~14:00)
- 초 진: 의료보험카드 및 주민등록증 지참
- 문 의: 731-3435

수정노인복지회관 "무료법률상담"

- 상 담 일: 매주 금요일(14:00~)
- 상담방법: 상담접수 후 내방상담
- 상담내용: 채권채무, 재산상속, 임금체불, 가족관계, 이혼문제 등 생활법률 상담
- 수정노인복지회관 상담실 731-3393~4

성인지체장애인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 프로그램: 성인지체 생활체육(탁구·요가·배드민턴)
- 대 상: 성남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지체 장애인
- 선정기준: 의사소통·신변처리·기본적인 일상생활 가능자
- 접수기간: 선착순 총원시까지(비용무료)
- 성남시장애인복지관 사회재활팀 733-3322

무료 가사도우미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2. 28 ~ 3. 28
- 모집분야: 가사도우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 2장, 보건증
- 성남YWCA 701-2501~2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안내

- 점검기간: 3. 1 ~ 3. 31
- 점검지역: 분당동·시흥동·신곡동·고등동·오야동 일대
- 점검기간: 4. 1 ~ 4. 30
- 점검지역: 분당동, 서현동 일대
- 점검대상: 일반용 전기설비
- 한국전기안전공사 성남지사 750-1130

대가족 고객 전기요금 누진단계 하향 추가적용

- 적용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수 5인이상 (또는 자녀수 3인 이상) 주택 주거용 고객
- 요금적용방법: 월300kW 초과 600kW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 적용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한국전력 성남지점 750-3314

"분당동화워는어른모임" 회원 모집 강좌 안내

- 기 간: 3. 27~28, 4. 3~4(총4회), 10:00~12:00
- 장 소: 서현청소년수련관 공연장(B2)
- 대 상: 분당주민(회비 2만원)
- 강 좌: 오리엔테이션(3. 27), 마음을 살피우는 책읽기(3. 28)
- 어린이도서연구회 기본교육(4. 3), 동화작가 초청강의(4. 4)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분당지회 동화워는어른모임 010-7758-0688

후반기(여군·헌병)부사관 모집

- 모집인원: 여군 000명, 헌병 00명
- 지원자격: 고졸이상, 18세 이상 ~ 27세 이하
- 지원서접수: 3. 6(화) ~ 5. 7(월)
- 육군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과 02-505-7162~5

불법소지총기 일제점검

- 점검일시: 3. 12 ~ 5. 11(2개월간)
- 점검장소: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
- 점검대상: 공기총, 공기권총, 마취총, 전자총격기, 석궁 ※ 공기총 중요부품이 지구대에 보관중인 5.5단탄 공기총은 제외
- 점검내용: 총기 개·변조 여부,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확인 등
- 성남수정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분당경찰서

"전기에너지절약운동" 참여 아파트단지 모집

- 대 상: 관내 아파트 단지
- 모집기한: 3. 30(금) 선착순 4개소
- 실천기간: 4월 ~ 9월(6개월)
- 특 전: 우수절약아파트단지에 인센티브 제공 - 전 참여가구에 에너지효율상품 제공 - 매월 전년대비 20% 절약가구에 상품권 제공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 e-mail: snkeui@chol.com

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고

- 매입대상: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등
- 신청기간: 3. 12 ~ 3. 30(금)
- 신청장소: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50-8222, 8325

외국인대상 국어·문화체험 교실

- 교육대상: 외국인 이주 여성
- 교육내용: 국어교실·문화체험교실
- 접수기간: 3.1(목) ~ 4.6(금)
- 성남YWCA 사회환경부 701-2503

정보나눔은 공익성이 있는 알림 소식에 한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12일까지 접수받으며 <비전성남>은 25일에 배부됩니다.

2007년 4월중 시민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안내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전화번호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전화번호					
수정구청	포토샵·플래시 기초	성남시민	4.23~5.4	22	수시 전화접수 (선착순마감)	737-2301~4	수정문화 정보센터	드림위버	성남시민	4.3~4.26(화~금)	30	3.27~3.29(선착순) 안내대, 홈페이지접수	743-9600					
	오피스 기초		4.9~4.20	22				MS-WORD			30							
	홈페이지 기초		4.9~4.20	22				엑셀 중급			30							
중원구청	컴퓨터 기초	성남시민	4.9~4.20	25	4.2(월) 09:00~ 방문, 전화접수 (선착순마감)	750-2308	중원문화 정보센터	직장인 포토샵	성남시민	4.3~4.26(월~금)	30	3.26~3.28(인터넷 선착순접수) www.snjungwonlib.or.kr (방문, 전화접수 불가) 정보봉사팀	752-3916					
	인터넷 기초		4.9~4.20	25				홈페이지 디자인			30							
	컴퓨터 중급		4.23~5.4	25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션			30							
중앙도서관	컴퓨터 기초	성남시민	4.3~5.25(화,목)	35	3. 27(화) 09:00부터 온라인접수 www.sncentrallib.or.kr	729-4892, 3	성남시 수정 청소년수련관	직장인을 위한 엑셀(2003)초급	성인	4.7~4.28(토)	30	3.26(월)부터 선착순 사회교육사무실(2층)	740-5244					
	인터넷 고급		4.3~5.25(수,금)	35				컴퓨터 기초			초등(1~2)			3월~5월(화,목)	15			
	한글2002		4.3~5.25(화,목)	35				한글 기초			50세이상			4월(화,목)	15			
	엑셀 및 파워포인트		4.3~5.25(수,금)	35				엑셀 기초			성인			5월(화,목)	15			
	홈페이지 제작		4.3~5.25(화,목)	35				PC활용기초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3개월(월,수,금)	40	수시모집 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지회	732-6884	
	컴퓨터 왕초보		4.3~5.25(수,금)	35											엑셀 자격증			24
	(직장인)홈페이지 제작		4.3~5.25(화,목)	35											워드 자격증			24
성남여성인력 개발센터	성남시민	4.13~5.11(금)	4.13~5.11(금)	30	과정별 개강일전 (미금역1번출구)	718-6696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ITQ자격증	장애인 및 가족수과	4개월(월,수,금)	24							
								인터넷, 파워포인트			3개월(화,목)			24				
								웹디자인 전문가교육			3개월(화,목)			24				

통 반장님! 비전성남 배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탄천 일일기행

탄천 따라 흐르는 꿈과 소망을 만나다

봄을 느끼기엔 다소 차가운 바람 속에 탄천에 유유히 떠있는 흰뺨검둥오리를 따라 탄천변을 걷는다. 16km의 길이에 60만평에 달하는 넓은 자연지역... 가장 먼저 입을 틔우는 버드나무 잎사귀가 연두빛을 머금는다. 삼천갑자 동방삭이 숲을 희어지도록 씻어 숲내가 되었다는 전설이 생각나고 줄지어 선 아파트와 회색빌딩 사이로 부는 바람이 산과 하천을 이어준다. 좀더 시민들과 가깝고 깨끗한 탄천으로 태어나려는 노력이 곳곳에 있어 희망을 본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탄천은?

탄천은 용인에서 흘러들어 분당에서 크고 작은 개울이 합쳐 수도권의 젓줄인 한강으로 흘러간다. 서울대병원 주변에는 토지박물관, KT과학관, 주택전시관이 차례로 위치하고 있어 자녀들과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

정지역에서 서현교를 지나 아탑역 부근 코리아디자인센터에 이르는 구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씩씩 바람을 가르는 사람들, 황사를 대비해 모자에 마스크로 무장한 건기족과 인라인 마니아들이 눈에 띈다.

아빠와 입체 비행기를 날리려 바람 부는 날을 택해 나온 아이들이 세찬 바람에 몸을 감싸 안고 있다. 하늘을 가르는 모형 비행기들이 내는 굉음 소리를 나도 어느새 쫓아가고 있다.

농구사랑의 학생들과 선생님, 게이트볼을 즐기는 어르신, 참으로 다양한 놀이와 운동이 탄천과 함께 생활의 여유로 자리 잡았다.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탄천은 '무엇'인가? 갑자기 물어봐서인지 간단하지만 여운을 남기는 대답들도 있다. 휴식이다,



운동공간이다, 성남의 등줄기다, 더럽다, 돈(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생명이다, 썩과 봄나물 밭이다. 어느새 땅밖으로 고개를 내민 보드라운 썩은 운동 나온 아주머니의 비닐봉지만이나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곳곳에 식수대 4곳과 화장실 21곳이 설치돼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계절이벤트로 5곳의 물놀이장과 썰매장, 분당구청 앞 스케이트장이 개장된다.

이 밖에도 분당제생·분당차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 알아두면 편리한 곳들이 탄천변을 따라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재래시장 모란시장과 여수동 연꽃나라도 볼거리다. 앞으로 나무를 심고 꽃길을 조성해 푸르름을 더하고 모래사장과 수경분수·비치발리볼장의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며,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생태통로나 생태공원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성남을 둘러싼 산과 하천, 그린시티의 자부심

환경부가 인정한 전국 7개 지역 중 한곳으로 자연생태복원 우수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제2회 환경관리우수차지단체공모에서 그린시티로 선정됨으로써 가지는 자부심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느껴진다.

문화적인 여유로움도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간다. 며칠 아5월이 되면 불정교 아래서 색소폰 연주회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탄천 페스티벌과 각종 전시회 그리고 마라톤대회도 펼쳐질 것이다. 이렇듯 탄천은 언제부턴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마당으로 자리하고 있다.

탄천은 우리에게 무어라 할까?

인간과 자연을 가깝게 만나게 해주는 탄천. "나는 지금 투병 중이에요. 저기 떠다니는 하얀 비닐봉지는 결코 오리가 아닙니다." 가끔은 탄천이 우릴 향해 고함치고 있는 듯하다. 음식물과 쓰레기처리, 애완동물관리, 물고기잡기, 가정에서 세제줄이기... 알면서도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며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환경이 주는 경고에 귀 기울이고 잠시 빌려 쓰는 자연,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임을 알아, 삶에서 실천하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개발과 보존의 줄다리기 속에서도 맑은 물에 버들치가 마음 놓고 헤엄치고, 물방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듯한 무늬를 가진 물총새를 볼 수 있는 그날을 꿈꾼다. 탄천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김진아 기자 jinahflower@hanmail.net